

군산시, 기업 투자규모 1조원 넘어

태양광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로 올해 29개 기업 3675명 고용효과도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군산시가 올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기업 투자 규모 1조원을 넘어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날 28일 새만금 서울투자전시관에서 (주)태양광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9년 한 해 동안에 2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투자규모 1조 169억원, 고용인원 3,675명의 유치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분야가 명신, 에스엔케이모터스, 에디슨모터스 등 9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테크윈에너지 등 3개 기업이었으며, 그 외 금속, 철강,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수상태양광, 차세대 건설기계 등의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2개의 연구기관도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명실공이 연구와 생산이 공존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도시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

또한 투자지역별로 살펴보면 새만금산업단지가 20개로 투자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군산2국가산업단지가 6개, 군산국가산업단지 2개, 군산자유무역지역 1개 기업으로

파악되면서 새만금이 군산 지역산업 및 경제의 핵심이자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명신, 해원엠에스씨 등 14개 기업이 입주계약, 착공 등 실제 투자를 진행하며 약속한 4,651억원의 투자와 1,4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외 기업들도 차근차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새만금과 군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지정됨에 따라 첨단 산업의 기반이 구축되는 한편,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강임준 시장은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에게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형 대체 산업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그동안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내 장기입대용지 30만평을 조성해 새만금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격적 투자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고 신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힘써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 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익산시, 도시공원 조성 본격화

마동·모인·수도산공원 협약 체결, 2022년까지 조성

익산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 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마동공원은 (주)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주),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주)이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익산시는 연 말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팔봉공원(1.2지구)도 신속히 행정절차를 추진, 협약 체결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사업이 본격화되면 시의 재정 부담 없이 도심에 대규모 공원 조성될 뿐 아니라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해결될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도심권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조경시설이 어우러진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정 '환경중심' 전면 개편

환경 불법행위업체 강력 단속, 영세 업체 시설지원 확대

익산시가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고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최근 발족한 익산시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이 조직개편과 제도정비하고, 조직개편에선 환경관련 부서를 국 중심부서로 배치하여 정책업무와 인허가, 지도단속, 환경시범을 다루는 과로 각각 분리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이 같은 부서별 협업을 통해 친환경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시민참여팀은 12월까지 6팀,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를 최우선 시정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환경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도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 단속과 함께 환경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시켜 영세 업체들이 방지시설과 악취저감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여겠다"며 "앞으로도 익산시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을 환경 중심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앞장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조인갑)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9일 농협 군산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명 채용에 이어 이번에도 3명의 군산 지역인재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학력·연령·전공·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통해 군산에 연고성 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3명(남2, 여1)을 선발했다.

조인갑 지부장은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이 농업과 농촌, 조합원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즐겨 달라"며 "앞으로도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의장단 - 범시민공동대책위, 환경문제해결 간담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의장단과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창신 이영훈 이학준 하춘자/이하 익산환경문제공동대책위)가 최근 시의회 의정실에서 익산 환경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익산환경문제공동대책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문제가 시민건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익산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합마 잠점마을 집단 암 발병 문제,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

물 문제, 악취, 미세먼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 등 익산시의 총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익산환경문제공동대책위는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시민감사위원회 등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시민참여와 검증이 가능한 환경행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고, 환경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민간자본을 배제하는 방안 모색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의회는 합마면 잠점마을 집

단 암 발병과 관련하여 비뚤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환경문제를 중점적인 의정활동으로 더욱 심도 있게 다루고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기관 업무 점검과 현장 확인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대 의장은 시의회와 익산환경문제공동대책위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보다는 실천에 무게를 두어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비료생산업체 특별점검

익산시는 잠점마을 사태 재발 방지와 농업인에게 안전한 양질의 비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비료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료 생산원료·생 산시설에 관한 사항 및 제조원료 관리대장과 보증성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향후 비료업체들이 자주적으로 양질의 비료를 생산·관리하도록 비료관리법과 비료 공정규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상하수도 수도요금 조회납부 시스템 이용자 증가

군산시 상하수도 수도요금 조회 납부 시스템이용자가 증가하며 편리한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수도과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9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화 및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요금조회, 이차 요금 정산 및 요금 자동납부 신청 등 민원처리가 365일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방법이 기존의 위택스 납부 방법보다

단순하여 이용자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9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5,000여명을 넘기고 있다.

전종신 수도과장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단순 요금문의 전화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 이 한걸음 진일보 했다고 평가하며,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요금고지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